

'솔릭' 이어 가을 태풍 예고...농민 시름 가중

9~11월 한차례 더 발생... 이상저온·가뭄·폭염·집중호우에 한숨만

제19호 태풍 '솔릭'에 이어 한반도에 올 가을(9~11월)에 강한 태풍이 한차례 더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이상저온(以上低溫), 가뭄, 7월 초 집중호우, 최근 폭염피해까지 겪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9~11월)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오는 가을까지 태풍이 한차례 더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 가을철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평년(1981~2010년) 수준의 태풍(10.8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도 평년 수준(0.8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 주변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통상적인 태풍 진로를 봤을 때 가을에 오는 태풍도 긴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발달해 강한 세력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엘니뇨(3개월 이동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5개월 지속될 때) 경향이 나타나면 태풍의 주된 발생 위치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로 진입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열대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로, 약한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또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유지되고 있어 9월 초반까지는 여름철 특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9월 평균 기온은 평년(20.1~20.9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다. 10월은 평년(13.9~14.7도)보다 높고



제19호 태풍 솔릭이 상륙한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한 상인이 상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최한배 choi@kwangju.co.kr

11월은 평년(7.0~8.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다. 강수량의 경우 9월은 평년(74~220.7mm)보다 적겠고 10월(33.1~50.8mm)과 11월(22.8~55.8mm)은 많겠다.

광주지방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2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최저온도는 24~27도, 최고온도는 29~31도 분포를 보이겠다. 2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최고 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

어질 예정이다.

한편, 태풍에 이어 폭염이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전남은 지난 4월 7~8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1도로 떨어지던 이상저온이 발생한 데 이어 가뭄이 지속됐으며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는 장마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광주에 275.1mm의 비가 내리는 등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이후 현재까지 폭염이 지속되며 사과·단감농가 등

이 일소현상(日燒現象·햇볕에 과일이 데여 변색되는 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태풍 '솔릭'까지 겹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나주에서 배농사를 하고 있는 남형근(59)씨는 "이번 태풍은 방비를 단단히 했는데 아무래도 배나무들이 냉해와 폭염 때문에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며 "수확시기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조선대·순천대 등 지역 12곳 구조조정 직면

자율개선대 포함 안될 듯

사립 조선대와 국립 순천대 등 지역 12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우수대학)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발표한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12곳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조선대·순천대·남부대·동아보건대·세한대·송원대·목포교과대학·조선간호대·한영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이 권고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한려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 3곳이 올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과 함께 일반재정·특수목적 사업 모두 지원이 제한되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장학금 제한은 고구려대의 경우 50%,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100% 제한된다.

이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과인 2단계 평가를 놓고 해당 대학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는 4년제 일반대학 중 광주대, 광주여대, 동신대, 목포카톨릭

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초당대, 호남대 등 9곳이 포함됐다. 전남대학에서는 광주보건대, 동강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등 7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우수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I, II)으로 분류,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목적 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며, 재정지원제한 I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운영 효율화 추진, 재정지원제한 II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오후 2~6시 하룻길 최다

개학이 시작되는 8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다. 특히 하룻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만 8253건이 발생해 7만 23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 중 32%인 2만 3335명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중 사상자 발생은 하교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만 놓고 보면 사상자 25%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달뜨기 17:58
해질 19:11 달짐 03:38

태풍 통과 중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 불다 오후에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비	25/31	보성	흐리고비	24/29	인천	☁	춘천	☁	강릉	☁
목포	흐리고비	23/30	순천	흐리고비	26/31	대전	☁	청주	☁	독도	☁
여수	흐리고비	26/31	영광	흐리고비	25/30	전주	☁	대구	☁	부산	☁
나주	흐리고비	25/31	진도	흐리고비	26/29	광주	☁	제주	☁		
완도	흐리고비	27/30	전주	흐리고비	25/30						
구례	흐리고비	24/30	군산	흐리고비	25/29						
강진	흐리고비	26/30	남원	흐리고비	25/30						
해남	흐리고비	25/30	흑산도	흐림	25/29						
장성	흐리고비	24/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2.0~5.0	남서~서	1.0~3.0
	먼바다	남서~서	4.0~8.0	남서~서	2.0~5.0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	남서~서	1.0~3.0
	먼바다(동)	남~남서	3.0~5.0	남서~서	2.0~4.0
남해	앞바다(서)	남서~서	3.0~5.0	남서~서	2.0~3.0
	먼바다(서)	남서~서	3.0~5.0	남서~서	2.0~3.0

◇생물지수

위험	☀
높음	☀
중음	☀
낮음	☀

◇주간 날씨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	☁	☁	☁	☁	☀	☀
24/32	25/32	25/30	25/30	25/33	25/33	25/33

광주·전남 건설현장 10 곳 중 9곳 안전대책 미흡

노동청, 35곳 적발... 12곳 입건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 10곳 중 9곳은 노동청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3일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대상 현장 39곳 중 총 3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광주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고위험을 방지한 현장(13곳, 33%)의 사업주·현장소장 등이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남구 A건설의 주택공사 현장에서는 안전통로·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8

건을 위반했고, 광주시 공산구 B건설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5건이 적발됐다.

화순군 소재 C건설은 공공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통로 미확보 등 4건을 위반해 현장소장이 입건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32곳)은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형복구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1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식약처, 혈압 치료제 '발사닌정80밀리그램' 판매중지

명문제약이 원료를 수입해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이 추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52개사 86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